

'전라감사와 콩쥐의 달콤한 로맨스'

지역 우수 콘텐츠 기업 제작 3D애니메이션 퓨전사극 '콩쥐별전-전주성의 비밀' 25일 개봉

전라감을 배경으로 전라감사와 콩쥐의 로맨스를 다룬 퓨전사극 3D애니메이션이 관객들과 만난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 이하 진흥원)은 콩쥐팥쥐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사극 3D애니메이션 '콩쥐별전-전주성의 비밀'이 오는 25일부터 약 2주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된다고 10일 밝혔다.

'콩쥐별전'은 진흥원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18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것으로, 지역 애니메이션 기업인 (유)올빼미하우스(대표 배효상)가 총 59분 러닝타임으로 제작했다. 이 작품은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프로모션 부스를 통해서도 선보인 바 있다.

진흥원과 (유)올빼미하우스는 이 작품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지역 민영방송과 하반기 방송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향후 명절특선으로 공중파를 통해 전국방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3D애니메이션 콩쥐별전은 지역 특화소재(설화)를 통한 새로운 스토리텔링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스토리 기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디지털콘텐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올빼미하우스는 지역 3D애니메이션·모델링 전문 제작사이자 MBC, JTBC 등 다수의 공중파 채널에 방영된 '수빈스토리·2'를 제작한 기업으로 한국의 지브리 스튜디오를 꿈꾸는 기업이다.

/송효철 기자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최근 지역 향토자원 활용 및 발효기술 확산을 위한 전통주 제조(중급) 과정의 수료식을 가졌다.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통주 제조 수료식 가져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원장 정도연, 이하 진흥원)이 최근 지역 향토자원 활용 및 발효기술 확산을 위한 전통주 제조(중급) 과정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료한 21명의 교육생들은 지난 5월부터 8회에 걸쳐 전통주 문화론인 이론교육부터 전통주를 담그는 과정을 실제 몸으로 익히며 지역내 전통주 제조자로 활약을 위한 담금질을 마쳤다.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전통주 제조교육

과정은 지난해까지 8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자체적으로 민간 연구회인 순발력(순창발효의 힘)의 약자를 구성해 연구활동을 지속하는 등 지역내 전통주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진흥원도 지난 2016년부터 전통주 경연대회를 매회 개최하며 지역내 전통주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견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대한민국명주대상에 입속주씨를 비롯, 다수가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나선 박복담 소장(한국전통주연구소)은 "발효고장 순창에서의 전통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의 열정이라면 순창누룩의 복원도 시간문제라 생각된다"면서 "단순한 전통의 복원뿐 아니라 최고의 전통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곧 전통주의 승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수료생 중 일부는 전통주 관련 창업에 성공해 농가소득 증대 및 관내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함께 만들어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27일까지 접수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는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성평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육 현장 연계 및 일상 생활 속 실천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019 제3회 성평등 콘텐츠 대상 전국 공모전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취업시장에서의 성평등 ▲성평등 연애 ▲젠더갈등 해결을 위한 공감과 존중 ▲학교, 직장, 가정, 일상, 미디어 등 성평등 소재를 내용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 형식은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애니메이션 등 13개 부문으로 공모전 출품 마감 전까지 미발표된 순수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콘텐츠 플랫폼 '젠더온(gemkiggeon.kr)' 통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은 일반부, 학생부로 구분해 여성가족부 장관상 250만원을 비롯해 총 1,400만원이 상금이 마련돼 있고, 도내 출품작을 대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상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 우수한 작품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등 전국성평등교육협의회 기관 및 공공기관, 기업, 각 지자체, 학교 등 교육 현장에 배포돼 활용된다.



이운애 센터장은 "최근 여성혐오와 성 갈등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양성평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 및 실천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도민들의 많은 참여로 성평등 문화를 주도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814 또는 홈페이지(www.jwecr.kr)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정읍 실버작은도서관에서 9일 '인문 360 골목콘서트'의 첫 무대가 열렸다.

정읍 실버작은도서관서 '인문 360 골목콘서트' 성황리에 열려

두 번째 시즌을 맞는 '인문 360 골목콘서트'의 첫 무대가 9일 정읍 실버작은도서관에서 열렸다.

콘서트는 '골목에서 소리가 난다'를 주제로 내장산 실버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그림책 읽기와 미술공연, 버블쇼 등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관련해 골목콘서트는 전국 방방곡곡 여러 지역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인문 콘텐츠들을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다.

골목 콘서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일상을 바꾸는 소소한 놀이'를 테마로 8월 17일까지 6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실버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